

CHAPTER 1. 대입의 핵심을 파악하라

2) 상위권대 가려는 학생들의 고민, '학생부종합 vs 논술전형'

주요대학, 대세는 '학종'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시 전형별 모집 비율

구분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기타	합계
2017학년도	39.7%	20.3%	4.2%	5.0%	0.7%	69.9%
2018학년도	40.0%	23.6%	3.7%	5.3%	1.1%	73.7%

※ 대교협 전형계획안 기준

2018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 대비 각 전형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시모집은 전년도 69.9%에서 73.7%로 올랐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생부교과전형'입니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지요. 2018학년도에는 이 전형으로 무려 40%에 달하는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합격하려면 내신 성적 관리뿐 아니라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으로 좁혀보면 학생 부교과전형의 비중은 낮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10%내외에 불과했지요.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즉 이들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지만, 전국에 있는 그 외의 대학을 포함 했을 경우라면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지방 거점 국립대 및 중위권 대학에선 학생부교과전형이 높고, 서울 주요 대학에선 학생부종합전형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해 입시전략을 짜야하는 것이지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학생부종합전형을 노려야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모든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논술위주 전형인 일반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각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은 신설된 학생부종합전형인 일반전형으로 선발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서울 주요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특히 최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반영되므로 내신 성적을 잘 챙기는 것은 물론 다방면의 독서를 하며 이를 교과 심화활동으로 확장시키는 노력도 병행 해야 합니다.

논술전형 영향력, 무시 못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없는, 즉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좋지 않거나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은 '논술전형'을 적극 노려봐야 합니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와 논술고사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말합니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 반영 비중이 지극히 낮습니다. 논술고사와 수능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학생부 관리는 미흡하지만 글쓰기에 뛰어난 감각이 있거나 수학, 과학 분야에서 남다른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논술전형

을 통해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비중이 줄어드는 논술전형 탓에 고민이 많습니다. 2018학년도에 서울 주요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비중은 지난 해에 비해 6.4%p나 떨어졌고 선발 인원도 1437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논술전형의 영향력도 같이 줄어들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2018 학년도에 논술위주 전형인 일반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고려대 일반전형은 2017학년도에 1040명을 뽑았습니다. 즉 2018학년도에 전체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437명 줄어들었지만 그 중 1040명 이 고려대의 논술전형 폐지로 인한 감소분이라는 것이지요. 연세대를 비롯 해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등의 논술전형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 폭이 크지 않습니다.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수치가 한 대학에서 줄어든 것이므로 고려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대학에선 논술전형의 비중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서울 주요대학에서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한국외대는 수시모집에 서 다른 학생부위주 전형보다 논술전형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에서도 20%에 달하는 인원을 논술전형으로 뽑고 있지요. 즉,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주요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전형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입니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연세대는 논술전형에서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등급 합 7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선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중 2개영역의 등급 합 4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지요. 즉,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 합격하려면 4개영역 중 2개영역만 2등급을 받으면 되지만, 논술전형에 합격하려면 4개영역 중 2등급 3개, 1등급 1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논술전형의 최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결국 논술전형의 당락을 가르는 것은 '수능 성적'이므로 논술전형으로 입시 전략을 짜려는 학생이라면 수능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요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의 정시모집 26 CHAPTER 1 대입의 핵심을 파악하라 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 이 40%를 넘는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대는 전체 모집인원에서 학생 부교과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전북대는 전체 모집인원 대비 44.5%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도 일부 대학에선 비중이 높습니다. 숙명여대, 건국대, 홍익대 의 정시모집 비중은 각각 40.8%, 39.4%, 38.6%로 전체 대학 정시 선발비중 평균인 26.3%보다 큼니다.

다만, 주요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학년 1학 기 내신 성적 관리에 힘쓰는 한편 부족한 비교과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지요. 논술전형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를 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서울 주요대학에서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한국외대는 수시모집에 서 다른 학생부위주 전형보다 논술전형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중앙대, 서 강대, 연세대에서도 20%에 달하는 인원을 논술전형으로 뽑고 있지요. 즉,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주요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전형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입니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 어 연세대는 논술전형에서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등급 합 7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선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중 2개영역의 등급 합 4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지요.

즉,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 합격하려면 4개영역 중 2개영역만 2등급을 받으면 되지만, 논술전형에 합격하려 면 4개영역 중 2등급 3개, 1등급 1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논술전형의 최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결국 논술전형의 당락을 가르는 것은 '수능 성적'이므로 논술전형으로 입시 전략을 짜려는 학생이라면 수능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요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의 정시모집 26 CHAPTER 1 대입의 핵심을 파악하라 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 이 40%를 넘는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대는 전체 모집인원에서 학생 부교과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전북대는 전체 모집인원 대비 44.5%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도 일부 대학에선 비중이 높습니다. 숙명여대, 건국대, 홍익대 의 정시모집 비중은 각각 40.8%, 39.4%, 38.6%로 전체 대학 정시 선발비중 평균인 26.3%보다 큼니다.

다만, 주요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

술전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학년 1학 기 내신 성적 관리에 힘쓰는 한편 부족한 비교과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지요. 논술전형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를 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부 종합 vs 논술전형

무엇이 나에게 더 맞을까?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논술전형이나. 많은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 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주요대학에서 이 두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적지 않으므로 두 전형 모두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 전형을 결정할 때는 학생 자신의 성향,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고교의 성향, 그리고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 및 학생부의 질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의 서류를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고교 3년 간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나의 학생부가 다른 지 원자와 차별화 되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심사 하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고교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벌여왔는지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통해 보면서 학생의 학업역량, 발 전가능성, 전공적합성을 두루 살핍니다. 당연히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기록,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만큼 리더십을 갖췄다는 기록, 수업 중에 생긴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기록 등이 학생 부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생부, 자기소개서 곳곳을 살펴보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논 술전형은 논술고사를 잘 볼 수 있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학생 부종합전형은 고교 3년간 꾸준히 학생부를 관리해온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논술전형은 이러한 준비과정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여 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논술고

사만 잘 치르면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내신 2~5등급대 학생들이 논술전형을 통해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상향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지원 패턴 때문에 해마다 대학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각각의 전형 요소들에 점수를 매겨 정량평가해 줄세우는 전형이 아니라 모든 전형 요소를 놓고 입학사정관들이 '정성평가' 하는 전형입니다. 즉,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다방면으로 독서도 많이 하고, 교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룬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상대적으로 논술전형에 비해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기도 합니다. 나의 교과 역량, 학교생활 충실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내신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내신 성적을 정량화해 평가하지 않을 뿐이지, 입학사정관들도 내신 성적의 중요성을 정성평가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부종합전형은 주요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에 게는 매력적인 전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특목고 및 자사고는 보다 특별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리다 보니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많은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이 논술전형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논술전형의 경우 '묻지마' 식 지원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논술고사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높게 나타난 과거 논술전형 경쟁률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직 고1 학생이거나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인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므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서활동을 꾸준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주도적으로 하는 한편,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각종 교과 심화학습 및 교내 경시대회 참가하며 수상 실적도 쌓아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일선 고교에서 다채로운 동아리를 개설하고, 특별한 경시대회도 주최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중심으로 입시지도를 하고 있으니 학교가 열어 놓은 장에 참여하기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학생부가 풍성하면 고3 때 주어지는 선택지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려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추가로 논술전형에도 지원해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